

## 3 강. 빈센트 반 고흐: 불안 속에서도 빛을 그린 사람

2026 년 4 월 23 일 10:30-12:00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녹음할 수 없습니다.

빈센트 빌렘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는 1853 년 네덜란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에는 슬픈 사연이 있다. 태어나기 꼭 1 년 전, 이름도 같고 생일도 같은 날 형이 죽었고, 부모는 그 이름을 그대로 다음 아이에게 물려줬다.

교회 묘지를 지날 때마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보며 자란 고흐는 어릴 때부터 "나는 왜 살아있는가"를 묻는 아이였다.

화랑 직원, 전도사, 광산촌 선교사 등 여러 삶을 전전하다가 27 세에 처음 붓을 잡았다. 화가로 산 시간은 고작 10 년. 그 10 년 동안 2,000 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1888 년 남프랑스 아를로 이주해 화가 공동체를 꿈꾸다가 고갱(Paul Gauguin)과 격렬하게 충돌한 뒤 발작을 일으키며 스스로 귀를 잘랐다. 1889 년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하고, 이듬해 1890 년 7 월, 37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이였다.

## 예술관 — 고흐가 그림에서 찾은 것

고흐에게 그림은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는 "나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즐겨 그린 대상은 농부, 광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아름다운 귀족이나 화려한 풍경 대신,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과 주름진 얼굴을 캔버스에 담았다. 불안과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는 오히려 더 밝은 색을 썼고, 더 격렬하게 붓을 휘둘렀다.

그림은 그의 치료였고, 기도였으며,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감자 먹는 사람들 (1885) 작품 1

네덜란드 시절, 고흐는 5 년에 걸쳐 농촌 사람들과 함께 살며 이 그림을 완성했다. 어두운 방 안, 등잔 불빛 아래 다섯 농부가 감자를 나눠 먹는 장면이다.

화면은 어둡고, 얼굴은 투박하고, 손은 거칠다. 일부러 그렇게 그렸다.

고흐는 동생 테오(Theodorus/Theo van Gogh)에게 편지로 이렇게 썼다.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은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번 것이야. 나는 그 사실을 그림에서 말하고 싶었어."

고흐에게 아름다움이란 꾸민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낸 삶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이 그림은 고흐 스스로 "내 첫 번째 완성작"이라고 부른 작품이다.

###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1888)** 작품 2

아를에서 보낸 시절, 고흐는 밤에 직접 밖으로 나가 스케치하고 이 그림을 완성했다. 짙푸른 밤하늘, 별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늘어진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손을 맞잡은 작은 남녀가 있다.

고흐는 테오에게 이렇게 썼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그리는 건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아." 인간은 작고 세상은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 별은 빛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다. 고흐는 불안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 자신이 바라는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냈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이 작품은 고흐 특유의 서정성이 가장 잘 드러난 그림으로 꼽힌다.

### **꽃 피는 아몬드 나무 (1890)** 작품 3

1890년 2월, 정신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받는다.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을 형과 같은 '빈센트'로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고흐는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조카를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아몬드 꽃이 가득 피어 있다. 아몬드는 남프랑스에서 겨울이 끝나기 전 가장 먼저 피는 꽃이다. 새 생명이 온다는 신호, 봄이 온다는 신호다.

그림을 배우던 시절 일본 판화에서 영감을 받은 붉은 선과 밝은 색채로 완성된 이 작품에 대해 고흐는 "인내심 있게 그려낸 최고의 작품"이라고 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밝은 그림을 그린 것이다.

지금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 **불안 속에서도 빛을 그린 이유**

고흐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사랑도 우정도 직업도 번번이 무너졌고,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난한 농부들의 밥상에서 노동의 빛을 보았고, 론강 위 별빛에서 인간과 우주가 연결되는 희망을 보았으며, 병원 침대에서도 조카를 위해 봄꽃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나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담은 고백이었다.

고흐는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세상이 알아봤다. 하지만 그는 알아봐 주길 기다리며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림이 자신을 살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린 것이다.

불안 속에서도 빛을 놓지 않았던 그 손끝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다. 지금 무엇이 당신을 살게 합니까?



작품 1 감자 먹는 사람들, 1885



작품 2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1888



작품 3 꽃 피는 아몬드 나무, 1890

---

정우철(도슨트·작가) 작품 분석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미술 해설에서 벗어나 화가의 삶과 예술을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전시 해설가. 지은 책으로는 『화가가 사랑한 밤』, 『화가가 사랑한 바다』, 『내가 사랑한 화가들』, 『미술관 읽는 시간』, 『도슨트 정우철의 미술 극장 1~2』 등이 있다.